

태조대왕[太祖大王] 고구려 왕실의 중시조

47년(민중왕 3) ~ 121년(태조왕 68)



삼국사기 태조대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태조대왕(太祖大王)은 고구려 왕실의 중시조라 칭할 수 있다. 재위 기간 중 한나라 군현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고,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여 고구려의 영역을 넓혔다. 지나칠 정도로 긴 재위 연수와 수명으로 인해 그의 생몰 연도와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은 그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있다.

2 태조대왕의 등장

태조대왕은 고구려의 제6대왕이다. 국조왕(國祖王)이라고도 하며, 이름은 궁(宮)이다. 태조대왕의 아버지는 유리왕(瑠璃王)의 아들인 재사(再思)이고, 어머니는 부여 출신이라고 전한다.

태조대왕 앞의 왕은 모본왕(慕本王)인데,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사람을 깔고 앉거나 베개로 삼는가 하면, 함부로 죽이기까지 하였다. 폭정을 펼치던 모본왕은 결국 자신의 시중을 들던 모본 사람 두로(杜魯)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태자가 있었지만 나라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하여 궁으로 하여금 대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때 태조대왕의 나이 겨우 7살이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태조대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뛰어나게 영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왕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였으므로 한동안 태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했다고 한다.

3 전쟁과 영토 확장

태조대왕 치세의 고구려는 사방으로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한(漢) 나라와의 전쟁은 물론 주변 소국들에 대한 병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태조대왕이 여러 차례 요동 지역을 침입하여 한나라를 괴롭혔음을 전하고 있다. [관련사료](#)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대왕은 56년(태조대왕 4) 동옥저(東沃沮)를 정벌하였다. 그 결과 국경이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薩水)에 이르게 되었다. 68년(태조대왕 16)에는 갈사국(曷婁國)이 항복해 왔고 72년(태조대왕 20)에는 과나부(曹那部)의 패자(沛者) 달가(達加)